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A의 B사상	59p
1	속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다하지 못하는 데가 없으며, 끝 가는 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괄하고 온갖 물의 유파(流波)를 바다의 일미(一味)로 귀납(歸納)시키었다. 부처님의 뜻이 지극히 공평하고 바름을 열어보이어 ... 시끄럽고 시끄러운 사생(四生 : 생물이 태어나는 네 가지 형태)들로 하여금 모두 무이평등(無二平等)한 참 성품에 돌아오게 하고, 어둡고 어두운 긴 잠에서 깨어나 다 함께 큰 깨달음의 극과(極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2	A은(는) 누구? ... A은(는) 한국 불교 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여 '해동보살'이라고도 불린다. A의 대표적인 저술인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은 ...	63p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3p (문제 동일)
3	질문 : <input type="text" value="(A)"/> 답변 : 만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앎을 구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한다 하여 눈이 없다고 하며 눈을 찾아보려는 것과 같은 것이로다. 자신을 신령하게 아는 능력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미 이것이 자기 마음이거나 다시 무엇을 구하라. 만일 아는 것을 구하려 한다면 곧 알 수 없을 것이니, 아는 것이 아닌 줄 알면 곧 견성(見性)이니라.	
	누구?	64p
4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말이나 형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만일 말과 형상을 떠나면 미혹에 빠진 것이며, 말과 형상에 집착하면 진리에서 떨어진 것이다. 단지 세상에는 완벽한 재주를 갖춘 이가 적고, 사람은 아름다움을 다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敎)를 배우는 이는 자성(自性)을 밝히는 내학(內學)을 버리고 문자와 경계를 따라 밖으로만 구하려 하며, 참선을 익히는 사람은 일체의 인연을 잊고 안으로 마음 밝히기에만 전념하므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그것은 마치 토끼의 뿔이 긴가 짧은가를 다투는 것과도 같고, 헛것으로 보이는 꽃이 짙은가 옅은가를 헤아리는 것과도 같다.	
	누구?	64p
5	크다 할까, 어느 구석에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고, 작다 할까, 어떤 큰 것이라도 감싸지 못함이 없다. 있다 할까, 한결같이 텅 비어 있고, 없다 할까, 만물이 다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으므로 감히 이것을 대승(大乘)라 할 것이다.	

1. 원효의 화쟁사상 2. 원효 (사상가를 전부 공부하고나면, +α로 사상가의 책 한 권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원효의 경우 『대승기신론소』 정도는 짚고 넘어가세요.) 3. 돈오(頓悟)를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해설에 따르면 이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태도라고 합니다.) 4. 의천 5. 원효